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9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6월 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일방통행은 박근혜정권의 특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둘러싸고 노사정 합의도 안되고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자 정부가 일방통행하기로 맘 먹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5월 28일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앞세워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무산되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제도?

공청회에서 노동부가 제시하려고 했던 내용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절차 등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걸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노동부는 정년연장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까봐 걱정이 되었나보다. 언제나 노동자 보다 기업 걱정이 앞서는 노동부이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동의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했다. 그러나 이걸 말 그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임금피크제는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제도이다.

니들 맘대로는 못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침을 내세워 현행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방통행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4.24 총파업의 기세를 몰아서 6~7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끝없이 몰아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투쟁을 준비하자. 정권과 자본의 폭주를 멈추는 방법은 우리의 투쟁 뿐이다.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대법원이 할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대법원은 5월 28일 발레오만도에서 벌어진 어용노조의 집단탈퇴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까지 열어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인가?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건설팅을 앞세워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어용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독자적 노조가 아닌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 지회가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2심 모두 동일한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여는 모양이 영 꺼림칙하다.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킬 또 하나의 무기를 자본들에게 쥐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통상임금 판결을 개떡같이 내렸던 것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이런 의심이 든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양우권, 배재형 열사
정신계승 결의대회**

○ 일시 : 6월 3일(수) 13시00분
○ 장소 : 서울 포스코센터

**청주노인병원
촛불집회**

○ 일시 : 6월 1일, 8일(월) 19시00분
○ 장소 : 청주시청 앞